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상호관세 15%→25%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협정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협약을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협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리나라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

“韓 국회 합의이행 안해”...목재·의약품 등도 대거 포함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언급...쿠팡·디지털 규제 불만도

한미관세협상주요일지	
2025년	※ 현지시간 기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3월 12일 발효)
2월 13일	트럼프,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예고
3월 26일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발표
3월 30일	트럼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서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예정 적시
7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관세 협상 큰 틀에서 타결.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등 인하 및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의 내용
8월 26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내용 승인, 후속 합의 미원으로 공동성명 미작성
10월 29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경북 경주시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한미 정상,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 합의
11월 14일	한미 양국 합의 내용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확정, 이재명 대통령 직접 발표
11월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발의
12월 4일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15%로 소급 인하 내용(11월 1일자 소급 적용), 미국 연방 정부 관보 게재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협정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 언급)
~1월	절차상 대미투자특별법(법안) 숙려 기간
2월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월 1·3주 전체회의 개최·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의 추진, 2월 중 법안 통과 전망

인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

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연합뉴스



뉴욕시에 내린 눈 치우는 제설차량.

연합뉴스

초강력 눈폭풍 이어지는 미국...최소 26명 사망

항공편 8000편 이상 지연·결항...69만 가구 이상 정전

미국 북동부·중부·남부 지역에 몰아닥친 초강력 눈 폭풍으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26일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남부 아칸소주부터 북동부 뉴잉글랜드주까지 2100km에 걸쳐 3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눈 폭풍이 지나간 곳에는 한파가 찾아왔다.

뉴욕시에는 수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적설량이 20~38c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있어 현재까지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 당국은 지난 24부터 현재까지 가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외에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제설차에 치여 2명이 사망했고, 아칸소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썰매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졌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캔자스주에서는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눈 속에 파묻힌 것을 수색진이 찾아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8000편 이상이 지연 또는 결항됐다.

대규모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미국의 정전현황 추적사이트 파워아우티지닷컴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역에서 69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